
		보 도 자 료		수도권매립지 종료 
배포일자		2021년 12월 17일(금) 총 3매		
담당 부서	건강증진과	담당자	• 정신건강팀장 유경철 ☎440-1581 • 담당자 안선영 ☎440-1583	
사진	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있음	참고자료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	
보 도 시 점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	

마음으로 ‘마음안심버스’ 가 인천시민 여러분을 찾아갑니다.

- 12월 21~23일, 인천시청 직원 대상 시범 운영 -
- 코로나19 대응인력 시작으로, 관내 정신건강 고위험군 대상 주 2회 방문 -
- 스트레스 검사·정신건강 심층상담·심리회복 등 찾아가는 정신건강 서비스 -

힘들고 지친 인천시민의 마음을 살피고 다양한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음안심버스가 17일부터 운영을 시작한다.

인천광역시는 17일 오후 1시 20분 마음안심버스 시승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. 오는 21부터 23일까지 인천시청 직원을 대상으로 한 시범운영을 거쳐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.

‘마음안심버스’는 지난 3월 인천시가 보건복지부 ‘마음 안심버스 운영’ 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4억 원을 지원받아 용도에 맞게 제작한 것으로 재난위기 대응 시 현장심리 위기대응을 지원하고, 정신건강 서비스가 필요한 지역에 직접 찾아가 다양한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.

버스 내부는 △대기 및 심리안정기기 이용 공간 △스트레스 측정 공간 △집단 프로그램 및 상담 공간 △개인 상담 공간으로 구성됐으며, 자동제세동기(AED) 등 응급상황에 필요한 기자재를 완비했다.

특히, 개인상담 공간에는 방음벽을 보강해 개인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설비를 강화했으며, 장애인·노약자를 위한 휠체어리프트 등을 보강해 시민 모두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 장치를 갖췄다.

앞으로 마음안심버스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높은 업무 강도에 지친 대응인력 심리지원을 시작으로 관내 정신건강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주 2회 이상 찾아가는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.

제공 서비스는 △스트레스 측정 △마음건강 검사 △심리회복프로그램 기기 이용 △개인·집단 상담 등이며, 이용자가 고위험으로 판단될 경우 치료비 지원 등을 통해 마음건강 회복을 도울 예정이다.

마음안심버스 이용을 원하는 단체나 기관은 마음으로 홈페이지(<https://maro.imhc.or.k>) 혹은 인천광역시정신건강복지센터 유선전화를 통해 신청가능하며, 개인 이용객은 마음으로 홈페이지 내 차량 운행 일정을 참고해 별도의 예약 없이 이용할 수 있다.

박남춘 시장은 “마음으로 마음안심버스가 시민에게 조금 더 가깝고, 편리하게 다가가길 바란다”면서 “앞으로도 마음건강 돌봄 소외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, 정신건강에 대한 깊은 관심으로 모든 시민이 건강하고 편하게 일상을 영위하도록 살피고 돕겠다”고 말했다.

※ 관련 사진은 14:00분 행사종료 후 인천시 홈페이지'인천시 인터넷방송'(<http://tv.incheon.go.kr/>)
'포토인천'에 게시될 예정입니다.